

 <p><b>정치하는엄마들</b></p>	<b>보도자료</b>		
	보도일시	2017. 12. 21. 목	
	담당	장하나	010-3693-3971
		김정덕	010-3455-0616
배포일시	2017. 12. 21. 목 11시	총 6매 (별첨 0건)	

**크리스마스에는  
무기 모방 장난감 말고 평화를 선물하세요~**

- 무기 모방 장난감은 아이들이 폭력을 자연스럽게 수용하게 되는 매개체  
- 편 가르고 싸우는 문화보다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아이들과 함께 배워야

- 일시 : 2017년 12월 21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시청 광장 (대형 크리스마스트리 앞)
- 주최 : 정치하는엄마들
- 순서 (사회 : 정치하는엄마들 이고은 활동가)
  - 발언 1 :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 활동가
  - 연대사 1 : (사)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문아영 대표
  - 연대사 2 : 전쟁없는세상 무기감시팀 쭈야 활동가
  - 발언 2 : 정치하는엄마들 김신애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활동가
- 퍼포먼스 : 산타클로스가 무기 모방 장난감으로 무장하고, 선물꾸러미 대신 군용 배낭을 지고 총을 선물하는 모습 연출. 무기 모방 장난감을 선물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폭력을 전달하는 일이라는 것을 표현

□ 무기 모방 장난감은 아이들로 하여금 폭력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매개체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크리스마스에 무기 모방 장난감을 선물하지 말자는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아이들과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 정치하는엄마들은 오늘 기자회견 이후 가정은 물론 교육·보육기관에서 무기 모방 장난감이 사라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협조를 요구할 계획이며, 백화점 및 대형유통점에서 무기 장난감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붙임 : 1. 기자회견문. 1부.

2. 조성실 활동가 발언문. 1부.
3. 김신애 활동가 발언문. 1부. 끝.

□ 붙임1

<기자회견문>

**“크리스마스에 무기 장난감 말고 평화를 선물하세요!”**

왜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쉽게 ‘없어야 할 적’으로 구분 짓고 적대감을 표출 하는 사회를 살고 있는가?

정치하는엄마들의 폭력에 대한 문제 의식은 아이들 장난감에서부터 시작한다. ‘고작’ 작은 장난감을 들고서 어느 샌가 다른 존재에게 해코지하려는 아이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의심한다. 아이가 보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떠한가? 자기 반성 없는 국가권력을 의심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던 교육과 사회가 지향하는 국가주의, 군사주의는 우리 일상에 아주 촘촘히 박혀 있다. 정치권은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들며 군사주의를 옹호하고, 문화계는 영화, 애니메이션, TV프로그램 등 각종 미디어를 통하여 반성 없는 폭력의 정당성을 공고히 하고 있다. 또한 자본은 게임이나 놀잇감으로 군사주의 캐릭터들을 상품화하여 폭력을 즐기고 소비하도록 한다. 가정과 학교는 물론 사회 온 곳곳에 폭력이 흐르는 일상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와 아이들 손에, 아무런 의심 없이 총과 칼을 놀잇감으로 키워지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미비한 안전검증으로 유통되고 있는 무기 모방 장난감은 물리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많다. 아이들이 사람이나 동물에게 조준하여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빈번하다. 무엇보다 이러한 장난감들은 아이들의 심리발달에 악영향을 미친다. 아동기 무기 장난감에서 청소년기 살상 게임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소비 구조는, 자신과 다른 존재를 처음부터 적대적 관계로 상정하여, 자신에게 가해지는 억압에 대한 무력감, 분노를 타자에게 폭력적으로 표출하도록 한다. 사회는 무기 모방 장난감으로 발생한 사고 책임 대부분을 아이와 양육자에게 지우지만 우리는 되묻는다. 누가 우리를 손에 무기 장난감을 쥐어 주었는가?

지난 2017년 6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대상 총기체험은 아동이 평화와 관용의 가치 대신 폭력과 적대감을 경험하게 한 것으로 보았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조 ‘아동 최선의 이익의 원칙’ 및 제29조 ‘이해, 평화, 관용과 우정의 정신에 입각한 아동교육’ 규정 등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향후 아동을 대상으로 총기체험 행사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아이들이 다른 생명을 헤칠 수 있는 자신의 힘을 경계하고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아닌, 적대감으로 발산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명백한 아동인권침해이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문제는 폭력을 정당화하고 무감각하게 만든 사회, 교육 분위기와도 결을 같이 한

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무기 모방 장난감을 그저 한낱 놀잇감으로 치부하며 폭력을 방치하고, 소비를 조장하는 기성 사회에 문제의식을 제기한다. 우리는 어른들을 통하여 자기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아이들 세상이, 헤쳐야 할 적이 아닌 더불어 사는 이웃들 가득한 평화로운 곳이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는 앞으로 1)무기 모방 장난감의 사회적 의미를 재정의 하고, 2)가정은 물론 교육·보육기관에서 사라지도록 관계부처에 요구하며, 3)백화점 및 대형유통점에서 판매하지 않도록 협약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오늘 정치하는엄마들은 올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여러분과 함께 무기 모방 장난감을 없애는 <무기 장난감, 안녕!> 캠페인을 선포한다. 무기 장난감 선물하지 마세요! 크리스마스엔 평화를 선물하세요!

2017년 12월 21일  
정치하는엄마들

[한국인권신문] 인권위, 아동 대상 총기체험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어긋나  
<https://m.blog.naver.com/wecanhelp/221020577859>

[한국일보] 장난감 화살로 동급생 실명시킨 초교 6학년... 전학조치  
<http://www.hankookilbo.com/v/1c27a2a8b69e40408bd978e51444bffa>

[연합뉴스] 불법개조 비비탄총으로 서바이벌게임 동호회원 적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7091629&sid1=001>

[연합뉴스] ‘사람 맞혀보고 싶어서’ ... 파병군 출신 20대 행인에 비비탄 총 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16/0200000000AKR20170816049600054.HTML?from=search>

[경향신문] ‘뽕’ 터지는 수류탄 장난감 판매 중단... 소리가 얼마나 크길래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5191020001&code=920401](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5191020001&code=920401)

붙임2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살 다섯살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조성실이라고 합니다.

작년초부터 저는 큰 아이의 이름으로 난민지원활동을 하는 국제기구에 정기후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 8월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신생아였던 아이의 이름으로도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계기는 아이와 동네를 산책하던 중 만난 활동가분의 설명이었습니다. 난민들이 평균적으로

난민 캠프에 머무르는 시간이 십삼년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제 손을 잡고 선 이 해맑은 네살 꼬마 아이가 열 일곱살이 넘어갈 때까지 비바람을 제대로 피하기 힘든 난민 캠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거죠. 심지어 그 곳에서조차 적절한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에 어른인 저도 놀랐지만, 고작 네 살이었던 큰 아이가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시다. 이후로도 며칠간 질문을 계속했고 그렇게 시작된 후원은 매일 밤의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어떤 날은 아이가 기도합니다.

“전쟁 때문에, 가난해서, 몸이 아파서 고통 받는 많은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다섯살이 된 아이는 남북이 총칼을 겨누고 있는 분단현실에 대해 왜냐고 묻고, 수십발의 총알 사이를 헤쳐 온 무명의 북한 군인에 대해서도 기도합니다 “아저씨 몸이 잘 회복되게 해주시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도 지켜주세요.” 그리고 제게 묻습니다. “그런데 있잖아. 그 아저씨는 어떻게 생겼어? 키가 작을까 클까? 똥똥할까 날씬할까?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아기는 몇명일까?”

어른들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무명의 북한 군인은, 아이의 세계 안에서 누군가의 가족으로 아빠로 재구성되고, 아이는 뉴스에서 만난 한 사람의 인격을 입체적으로 그려가면서 사람 대 사람으로 상대를 궁금해합니다.

아이는 때때로 그렇게 엄마인 저를 가르칩니다. 비교하고 경쟁하고 차별하며 서로를 배제하는데 익숙해져버린 어른들에게,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질문합니다. 그게 정말 최선이냐고요. 이해하고 연대하고 공존할 수 있는 더 나은 삶은 없는거냐고 말입니다.

얼마 전 저희 아파트 단지에 다음과 같은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며칠전 우리 단지 내에서 청소년들이 가면을 쓰고 비비탄 총으로 사람을 향하여 발포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비비탄 총으로 사람의 얼굴을 맞으면 인사사고의 원인이 되고, 유리창 등에 맞으면 시력물이 파괴될 수 있으니 비비탄 총을 보유한 부모님들께서는 청소년들의 지도를 당부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이 서로에게 비비탄을 겨누고 노는 장면도 심심찮게 보았고, 동네 공터에 떨어진 비비탄 총알을 줍는 다섯살 두살인 제 아이를 제지할 때도 잦았던터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자랄 때도 또래 아이들이나 오빠가 비비탄 총을 가지고 노는 모습은 흔하고 자연스러웠으니까요.

엘레베이터에서 그 벽보를 보고 집에 올라와 아이들을 씻기고 채우며 전쟁의 피해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려는데. 이젠 아닌란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평화는 전쟁터에서만 부르짖어야 할 구호가 아니고,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실천돼야하고, 아이들과 함께 평화를 일궈간다는 건 소소한 폭력과 차별에 저항하고 질문하는데서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기 때문입니다.

비비탄 총을 포함한 무기류 장난감으로 인한 실명 화상 등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특히 13세

미만 아동들의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이를 위한 법제도적 규제와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난감 총이나 화살 등으로 인해 실명했다거나 실명 위기를 겪었다는 등의 뉴스도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그래도 사회는 변하지 않고, 국영교육방송에서는 끊임없이 아이들의 환심과 주머니를 노리는 캐릭터들이 쏟아지고, 폭력성 상업성 선정성에 대한 아무런 고민 없는 콘텐츠와 상품들이 무차별적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어린이 선물을 위한 특별 매대에는 탱크 총 칼 등 남자 아이들을 위한 무기류 장난감이 전면배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일상에서 전쟁은 나쁜 것이고, 난민은 불쌍하고, 가난은 벗어나야 하는 것이라고 배우며 자라납니다. 어른들의 스승이기도 했던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평화엔 낯설고 경쟁과 폭력엔 익숙한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이런 우리 현실에 대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그간의 문화에 대해, 한 줄의 질문을 던지고자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제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우리의 현재가 정말 최선인지. 다시 말해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은 없는건지. 서로를 이해하고 연대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순 없을지에 대해서요.

평화는 때때로 대단한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많은 순간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에. 그 작지만 강력한 실천들에 함께하자고 초대장을 건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이들에게 무기 모방 장난감을 선물하지 않고 평화와 연대에 대한 상상력을 선물하는 것. 그 일부터 함께 실천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구 저편의 난민친구를 위해, 북에서 총 맞고 건너 온 무명의 북한 군인을 위해 기도하는 이 아이와 그 친구들이 혐오와 차별을 당연시하는 어른으로 자라가지 않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저희 단체 캠페인 디자이너로 활동하는 강미정 언니의 발언으로 마무리를 대신할까 합니다.

무기장난감을 통해 세상을 나와 적으로 편가르는 사고를 학습시키는게 싫어요. 상대를 적으로 쉽게 규정하면서 개별적인 특성을 볼수없게 되는것이 폭력을 낳는거같아요. 권력은 사람들이 편가르고 미워하는걸 원하는거일수도요 사랑할수록 연대하게도니까요. 그래서 무기를 본딴 장난감이 싫어요

독감 걸린 아이를 돌보느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강미정 언니 이외에도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여러 사정으로 현장에 나오지 못한 엄마들의 마음을 담아 힘차게 외쳐봅니다.

여러분!  
무기모방 장난감을 선물하지 마세요.  
크리스마스에는 평화를 선물하세요.

감사합니다!

### □ 붙임3

#### <발언문>

안녕하세요. 저는 4살, 3살 두 아이를 둔 정치하는엄마를 활동가 김신애입니다.

4살된 저희 아들은 로보트가 나오는 TV 프로그램을 매우 좋아합니다. TV만 틀어주면 저에게 칭얼대지도 짜증을 내지도 않아서 그 달콤함에 별 생각없이 좋아하는 로보트 TV 프로그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TV에 나오는 같은 캐릭터 장난감도 사 주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모습에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가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로보트가 나오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나쁜편을 만들어 싸우는 내용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준 장난감으로 아이는 TV에서 봤던 모습 그대로 동생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에잇! 받아라! 출동! 푸쉬~~!!! 너를 혼내주마!’ 등등 동생을 TV에 나오는 ‘적’으로 인식하고 때리고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머리카락을 쥐어 뜯으며 무지한 저를 탓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이는 그러한 행동이 이미 학습이 되어있었습니다.

저 경험이 저를 이곳에 서게 했습니다. 아이들을 하얀 도화지로 비유하곤 합니다. 아무런 편견도 심어지지 않는 무결점의 상태이지요. 그런 아이들에게 무기 장난감은 일단 ‘적’을 학습시킵니다. 그리고 그 적을 이기기 위해 싸우는 것이라며 폭력을 정당화 시키기 시작합니다. 폭력의 정당성이 나아가서는, 내가 필요시엔 살생의 정당성까지 갈까 상상하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아동기의 경험과 습득은 어른이 되어서도 이어지기 쉽습니다. 생명의 존귀함을 배우기 전에 공격성을 먼저 배우고 적대관계 속에 내모는 첫 시작은 바로 무기 장난감의 사용입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좋은 것만 보여주고, 좋은 것만 가르쳐주기 위해 많은 애를 씁니다. 그런데 혹시 무기 장난감 사용에 대한 문제의식 자체가 없진 않았는지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장난감인데 뭐.. 그냥 아이들이 갖고 노는 거잖아.’ 이런 생각 뒤에 아이들은 적을 만들고 폭력을 배웁니다.

큰아이가 동생에게 결투를 신청하며 장난을 거는 모습은 또한 안전성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아이들의 장난이 큰 사고로 이어진 기사를 보셨을 것입니다. 장난감 화살로 장난을 치다가 친구를 실명에 이르게 하기도하고, 비비탄 총으로 장난을 치다가 역시 눈에 맞아 큰 수술을 하기도 하는 등... 안전성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무기 장난감을 통한 아이의 놀이가 자칫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둔 엄마 아빠 이모 고모 숙모 삼촌 할머니 할아버지!!!  
총, 칼, 화살 등.. 위험하고 폭력적인 장난감을 아이 손에 쥐어주지 말아주세요.  
분명 그것은 위험하고, 잘못된 가치관을 갖게 합니다.

감사합니다.